

시나리오

제목	2045년, 강후의 하루
내용	
<p>2030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법으로 인해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에 관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45년 중학생이 된 강후는 데이터 브로커인 부모님께 중학교 입학 선물로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학교로 등교한다.</p> <p>어제 주말인 기념으로 강후는 학급 친구들과 학급 대항전을 위해 밤새 VR 축구를 연습했고 그 결과 늦잠을 자게 되었다. 잠에서 깬 강후는 지각을 직감하고 빠르게 씻고 자율주행 고속 모드로 자동차를 타고 학교로 출발했다. 하지만 등교 도중 고속모드로 인해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되었다.</p> <p>경찰이 “학생, 신호위반 인정하시나요?” 신호위반을 인정하는지 물어봤고 강후는 “네, 고속모드로 인하여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선처 가능할까요?”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다며 태블릿 한 대를 들고 왔고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입력이 끝나고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니 서버에서 KPT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의 주행 기록, 과태료 기록, 전과 기록 등을 분석한 뒤 결과를 태블릿 화면에 전송했다. “박강후님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없습니다. 다음부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처음으로 고속모드를 작동했던 강후는 지금까지 단속되었던 적이 없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학교에 도착한 강후는 1교시부터 체육 시간이기 때문에 홀로 렌즈를 착용하고 체육관에 가 수업에 참여하였다. 오늘 체육 시간은 다른 학교와의 학급 축구 대항전으로 진행되었고 학급 에이스이었던 강후는 학급에서 가장 필요했던 존재이었다. 체육관에 도착하니 칸마다 친구들이 들어가 있었고 강후는 남은 칸에 들어가 수업을 시작했다. 남은 칸에 들어가니 갑자기 눈앞이 축구장으로 바뀌었고 강후의 옷도 축구복으로 바뀌었다.</p> <p>축구를 지고 있던 친구들은 늦게 온 강후 보고 “똑같이 밤새워 연습했는데, 왜 너는 늦어. 우리 너 때문에 지고 있어”라고 장난을 쳤고 강후는 “미안해! 지금부터 내가 골 넣어서 이겨줄게”라고 하며 친구들에게 사과하며 골을 넣으려고 노력했다. 기어코, 강후는 해트트릭을 하며 3:2로 이겼다.</p> <p>체육 시간이 끝나고 학급 반으로 돌아온 강후는 반마다 있는 개인 인공지능 비서인 “우왕이”에게 오늘의 식단표와 수업 진행에 관해 물어봤고 5교시 연속으로 국어, 영어, 수학으로 진행하게 된 강후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p> <p>국어 시간에는 관동별곡을 배웠다. 선생님께서 시를 읊어주고 홀로렌즈를 끼라고 하셔서 홀로렌즈를 끼니 우왕이가 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장소를 보여주었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관동팔경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왜 정철이 관동별곡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는지 느꼈다. 그래서 학습 능률이 올랐다고 느낀 강후는 지금처럼 홀로렌즈가 없었을 때 국어 시간에는 어떻게 시를 이해했는지 궁금하였다.</p> <p>영어 시간에는 홀로렌즈를 끼고 미국에 계신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했다. 선생님께서 주어진 상황마다 장소를 변화시켰는데 바다에서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공항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놀이동산에서 회화를 하기도 해서 영어 시간이 재미있었다. 또한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학</p>	

교 학생들과도 대화할 수 있어서 더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강후는 가져왔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부모님과 대화하던 강후는 부모님이 요즘 하시던 일에 대해 듣게 되었다.

강후네 부모님은 인공지능 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AI 회사에 판매하는 중개인 역할인 데이터 브로커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AI 회사들이 무단으로 데이터 수집을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셨다.

강후는 무단으로 데이터 수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고 부모님께 질문하였다.

부모님께서는 예전에는 SNS,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질문들, 답변, 대화 등을 AI 회사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일명 “데이터 학습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허락 없이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요즘에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부모님은 강후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직접 찾아보는 게 아닌 “우왕이”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걱정돼 질문 과외를 신청했다고 말했고 오늘 시범 과외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녁을 먹고 강후는 처음으로 질문 과외를 받게 되었는데, 질문 과외는 과외 선생님이 상식, 수학 문제, 국어 문제 등을 질문하면 직접 인터넷이나 책을 보며 찾아보고 그에 대한 답을 과외 선생님께 답변하면 되는 형식이었다.

처음에 강후는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우왕이”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 주는 걸 시간 아깝게 직접 찾아보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하지만, 손수 찾아보며 직접 작성한 답변과 “우왕이”를 통해 들은 답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어떨 때는 직접 작성한 답변이 더 완벽할 때도 있었다는 걸 느꼈다. 또한, 질문에 대한 원하는 답변을 찾는 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검색해야 더 좋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왕이가 알려준 대로만 외우고 행동했던 강후는 스스로 찾아보며 공부해야 한다고 느꼈고 부모님께 질문 과외를 계속 받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강후는 취침을 위해 씻고 나왔다.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강후는 침대에 누웠고 쉽게 잠에 들었다.